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맹감본풀이

맹감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천왕맹감(天皇冥官), 지왕맹감(地皇冥官), 인왕맹감(人皇冥官), 동(東)이 가민 청맹감(靑冥官), 서(西)이 가민 백맹감(白冥官), 남(南)인 가민 적맹감(赤冥官), 북(北)이 가민 흑맹감(黑冥官), 중앙(中央)은 황신맹감(黃神冥官), 산으로 산신맹감(山神冥官), 물로는 요왕맹감(龍王冥官), 베론 가민 선왕맹감(船王冥官), 농수(農事)집엔 제석맹감(帝釋冥官), 책 보는 집인 책불맹감(冊佛冥官), 불도(佛道)집인 불도맹감(佛道冥官), 전생(前生) 그르친 집인 당주맹감(堂主冥官)입네다. 일흔오덱(七十八) 도맹감(都冥官)님전~ 난산국은¹⁾ 어딴네까.

맹감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이라. 주년국땅~ 소스만이가 낡데다. 세 술 나난 어멍 죽어불고, 다섯 술 나난 아방 죽어불고, 밥 빌어단 죽 썬 먹영 덩겜시난, 장승데감뜨님 만났구나. 흘목²⁾ 심어건 덩기는 게 남녀구별법(男女區別法)을 알았구나. 찬물 흰 사발 떠 놓안 입장갈림³⁾ 허난, 아기는 낫는 것이 미르끄르 보리끄르 오망 속속 솟아난⁴⁾ 가난하고 서난허니 아기덜은~ 베가 고파 비세⁵⁾ 올었구나. 허를날은 소스만이 각시가 쉬흔데 자 수페머리 끊영,

“장에 강 돈 석 냥 받앙 읍서. 쓸 사당 배고픈 아기덜 맥영⁶⁾ 살게.”

“어서 기영⁷⁾ 협서.”

장에 간 돈 석 냥을 받안 오단 보난~,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소리 나고 사람 소리 나는 딴간 보난, 사름덜은 도리도리 모였구나~. 무스 걸 놓아근 사렌 헤염신곤 허난 부지땡이⁸⁾ 님은 걸 풀암구나.

“저건 뭇이엔 흰 거파?”

“요건 마세조총이라.⁹⁾ 느는 썩에 불을 허민 백발백중(百發百中), 떼는¹⁰⁾ 노루에 불질 허민 백발백중 뉘민 궤기는 먹고 가죽은 풀민 가난한 집이 부제(富者)뉘네다.”

허난,

“얼마 받을 거파?”

“돈 석 냥을 받으쿬덴.”

헤연, 옷득지에¹¹⁾ 들어 메연 집이 오라간다. 소스만이 각신 아기덜은 미르끄르 보리끄르 난 아기덜 베가 고파건,

1) 난산국은: 본디 태어난 곳은 그 내력은 본풀이는.

2) 흘목: 손목.

3) 입장갈림: 혼인(婚姻).

4) 솟아난: 태어난.

5) 비세⁵⁾ 올었구나: 비세같이. 비세는 제비보다 조금 큰 세로 비가 올 듯할 때 잘 운다고 함.

6) 맥영: 먹여서.

7) 기영: 그렇게.

8) 부지땡이: 부지깽이.

9) 마세조총: 마상조총(馬上鳥銃)이라.

10) 떼는: 뛰는.

11) 옷득지에: 어깨 죽지에.

“밥을 줍서.”

비세?치 울엄구나. 어서 집으로 들어간다 보난 어깨에 부지땡이 닳은 걸 매연 오난.

“요 어른아, 돈을 줍서. 쌀 사당 아기덜 밥 헨 맥이쿠덴.”

허난,

“쓸데신 요거 상 오그라.”

“요건 뵈이우꽈?”

“마세조총인데 뵈는 노루에 백발백중이로구나. 노는 썩에 불을 노민 백발백중 맞힌덴.”

허난,

“요거 무신 말이꽈? 요 어른아, 세엄¹²⁾ 옛인 어른아, 아기덜 밥서. 비세?치 울엄수께.”

그걸 옷독지에 둘러메연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곶을¹³⁾ 도올라건 노는 썩에 불질 허난 허탕 (虛蕩)한다. 뵈는 노루에 불질 허난 허탕 헤엿구나. 그날 밤은 산에서 자게 뵈난,

“드르릉 주년국에 소스만아, 땡구르르~ 주년국 소스만아.”

세 번 불르건 대답 헉젠 헤난, 두 번만 불르구나. 뵈날 아적 먼동금동 데명천지(大明天地) 붉은 날이 뵈엿구나. 간밤이 불러난 디로 간 보난 소스만이로구나. 백년조상(百年祖上)이 잇입 데다. 백년조상이 곧는 말이,

“소스만아, 나는 백정싱이 아들인데, 노리각록¹⁴⁾ 사농 오랏다건 총은 나가 쓰던 총이고, 나를 모성 강 너네 집이 연양상고팡이 모시민, 부제팔명¹⁵⁾ 뵈와주크덴.”

허난,

“어서 기영 헉셴.”

헤연, 소스만이가 백년조상을 가져건 내려오라간다. 먼 올레 몰쿠실낭에¹⁶⁾ 걸어두곡, 옛날도 산천(山川)이 좋민 즈부(子婦)가 잘 뵈는 법이라, 안드로 들어강 큰각시안티 사실말을 ?난, 소스만이 각시가 멘보선 바람에 나간 보난에, 몰쿠실낭에 백년조상이 알더레 떨어지연,

“땡구르르 소스만아, 소스만아.”

헤염구나.

“아이고 조상님아, 어떻힌 일이꽈?”

그 법으로 옛날도 오뉴월 뵈영 몰쿠실낭 알에 누엿다. 으식헉민 포 떠는 병을 엿는 법입네 다.

소스만이 각시 집이 들영오란 상물¹⁷⁾ 숲아 놓안 모욕제계(沐浴齋戒) 헤연 연양상?팡에 올리난, 뵈날 부떠 노리각록도 백발백중, 노는 썩에도 백발백중 뵈난에 어서 가족은 풀고 궤긴 먹곡 허난, 가난허던 소스만이가 청기와 집을 출려 놓아건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았구나.

헉를날은 소스만이 노리각록 사농¹⁸⁾ 잡으레 가난, 썩 헉 머리, 노루 헉 머리 못 잡았구나. 필하곡절(必有曲折)허다. 집더레 오단 보난 백년조상은 옆뵈디 나왔구나.

“아이고 조상님아, 무사 베꿏디¹⁹⁾ 나옴데가?”

12) 세엄: 셋.

13)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곶을: ‘매우 깊은 산’의 뜻으로 씀.

14) 노리각록: 노루.

15) 부제팔명: 부자가 되어.

16) 몰쿠실낭에: 먹구슬나무에.

17) 상물: 향물.

18) 사농: 사냥.

19) 베꿏디: 바깥에.

“너네 각시가 너 이름을 부르난, 나를 네쫓가라.”

“죽을 일이 잇이민, 살 일은 모름니쎈.”

허난,

“넬라그네~ 집이 가건 상물 숲양 모옥제게 헤여근에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 도올라가 테역단풍²⁰⁾ 좋은 딜로 가건, 우으로 쪽지팽풍(-屏風),²¹⁾ 네 귀 접상(摺床) 팽풍 헤연, 주년국 스사만이엔 이름 씨여근 밥도 세 그릇, 술도 석 잔, 초신 세 베, 출령 백보(百步) 베끗디 업덴²²⁾ 흐곡, 너네 각시라건 천도천왕, 지도지왕, 인도인왕, 상간지오륜지법으로²³⁾ 헤여근 어서 큰긋허라.”

그와 같이 큰긋을 헤엿구나. 데시왕(大十王) 연맞이가 넘어갑데다. 소스만이도 산에 간 업데 난, 저싱 삼처사(三差使)가 출려근 와락치라, 와락치라 내려간다. 불빛 보아전 강 보난 베고판 밥 먹고, 신발 떨어지언 세(新) 신발 신고,

‘누게가²⁴⁾ 우리 생각 헤연 출려났인고?’

팽풍더레 보난, 주년국땅 소스만이 이름을 적언 잇엇구나.

‘앗차불사. 우리가 소스만이 데리러 오논디 소스만이 출려 논 음식을 먹엇구나.’

“소스만아, 소스만아, 너를 데리레 오랏구나.”

“아이고 갈 일이우다만은 우리 집이 강 우리 각시덜 애기덜 한번 마지막으로라도 보양 가쿠덴.”²⁵⁾

허난,

“어서 기영 허라.”

집인 오란²⁶⁾ 보난 큰긋 헤영 시왕맞이 헤엿구나. 천오 방액 올리난에 어서 소스만이가~ 저싱 삼처사에 방액(防厄)을 올리난,

“너야, 소원(所願)이 뭐가 잇겟느냐? 너영 난 혼 년에 난 동갑(同甲)이 잇겟느냐?”

“잇읍네다.”

“누게냐?”

“오만입네다.”

“너 대신 오만을 데령 가민.”

헤연, 저싱을 가니,

“너는 인간에 간 뇌물(賂物)을 받안 오랏구나.”

목에 큰칼을 씨앗구나. 목에 큰칼을 씨우난 그날 저녁에 자심판관(左審判官), 우심판관(右審判官), 책갑(冊匣)지기 넘어가다근,

“소스만아, 소원 한마디만 굴라.”

“경 흐건들랑 오늘밤에 이몽성이 염라데왕(閻羅大王)님 깊은 즘을 자건, 주년국땅 소스만이 이름 알에 열십 자 알에 보민 석 섬 자가 잇습네다. 석 섬 자를 열십 자를 놓아 줍센.”

허난, 삼십이로구나.

“삼십이난 열십 자 웃터레 세 하나만 올려놔 줍센.”

20) 테역단풍: 잔디에 단풍이 든 모양.

21) 쪽지팽풍(-屏風): 쪽을 내어 칸을 가른 병풍.

22) 업덴: 옆드려.

23) 상간지오륜지법으로: 삼강오륜법(三綱五倫法)으로.

24) 누게가: 누구가.

25) 가쿠덴: 가겠다고.

26) 오란: 와서.

허난, 그 우터레 춤 먹을 춤 붓에 짓정 우터레 올려 놓니, 모릿날 스오시가 됩니 염라데왕님이,

“어서 소스만이 목에 큰칼을 처형허렌.”

허난,

“염라데왕님아 저싱 문서(文書) 한번만 확인(確認)헤여 줘센.”

헤엇구나.

“저싱 문서 한번 확인 헤여 줘센.”

허난, 날아가는 세 혼 자를 굶어 놓았구나. 삼십(三十)이 아니라 삼천(三千)이로구나. 그땐에 소스만이 두갯이가 아방, 어멍 식계²⁷⁾ 안 헨 죄로 저싱 삼처서를 불렀인디, 저싱 삼처서에 방엑 올리난 소스만이가 죽을 목심을 살아나고, 소스만이가 죽을 목심을 살아나난에 어서 큰칼에 하옥시겠단 살아났습네다.

옛날 동방색(東方朔)이 삼천년(三千年)을 사난 강림이가 데령 갓습네다. 강림이가 데령 저싱 가난 옛날 광곽(郭璞)이²⁸⁾ 시아방, 주요기는 메누리, 시아방, 메누리가 상통천문(上通天文)²⁹⁾ 기지역신을 네엇구나. 상통천문 기지역신허니, 메누리를 죽이젠 저싱 삼처스를 불르난 메누리는 벌써 알았구나. 처서님 올만 허난 올레간 독³⁰⁾ 혼 무리에 날게에 주요기엔 이름 씨난 저싱 데려간 법이 잇습네다예~. 소스만이 난산국입네다예~.

27) 식계: 제사(祭祀).

28) 광곽(郭璞): 중국 서진(西晉) 말에서 동진(東晉) 초의 학자.

29) 상통천문(上通天文): 천문(天文)을 잘 앎.

30) 독: 닭.